

제52대 한국언론학회

2032년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연례학술대회

서울 유치 신청사업 추진 보고서

가. 추진 배경 및 의의

한국언론학회는 2002년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 연례학술대회의 서울 유치를 기획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2002년 서울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ICA 연례학술대회로서, 한국 언론·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계의 국제화와 연구 역량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6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ICA 연례학술대회를 다시 한국에 유치하는 방안이 제안됨에 따라, 한국언론학회는 2002년 개최 이후 30년이 되는 2032년 ICA 연례학술대회의 서울 유치를 추진하였다. 이번 유치가 성사될 경우 한국 학계의 성장한 연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알리고,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나. 주요 추진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02년	한국언론학회 주도로 ICA 연례학술대회 서울 유치 및 개최 지원. 아시아 최초 ICA 연례학술대회 개최
2026. 5. 8.~9.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ICA 연례학술대회 한국 재유치 필요성 제기
2026. 5. 12.	ICA 사무국에 2032년 개최지 선정 계획과 유치 절차 문의. ICA 측으로부터 서울 유치를 추진할 경우 관광·컨벤션 기관, 개최시설, 호텔 등과의 협의를 포함한 공식 유치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 접수
2026. 5월	서울관광재단과 2032년 ICA 연례학술대회 서울 유치를 위한 협의 개시
2026. 5. 28.	한국언론학회가 「2032 ICA 유치 계획서」를 서울관광재단에 제출
2026. 5.~8.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코엑스 대관 가능 일정, 국제회의 시설, 인근 호텔 객실 수용 능력 등 개최 여건 검토

2026. 8. 28.	서울관광재단이 ICA에 「2032 ICA 연례학술대회 유치 제안서(Proposal for the 2032 ICA Annual Meeting)」공식 제출
2026. 9. 17.	ICA 측으로부터 서울이 “가장 유력한 후보 도시 중 하나”라는 중간 평가 접수. 2002년 서울 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긍정적 기억과 코엑스의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주요 강점으로 평가됨
2026. 12월 예정	2032년 ICA 연례학술대회 개최지 최종 결정 예정

다. 주요 유치 계획

- 회의명: 2032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 연례학술대회
2032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개최 예정 기간: 2032년 6월 3일~7일
- 개최 예정 장소: 서울 코엑스(COEX)
- 예상 참가 규모: 약 3,500명(해외 참가자 약 3,000명)
- 해외 주최기관: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 지역 주관기관: 한국언론학회

라. 향후 계획

ICA 측은 2026년 9월 중간 보고에서 서울을 매우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 서울 개최 이후 30년 만의 재방문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엑스가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경험 역시 서울의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언론학회는 2026년 12월 예정된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서울관광재단과 협력하여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유치가 성사될 경우 2032년 ICA 서울 대회는 국내 언론·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연구자 간 학술교류와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